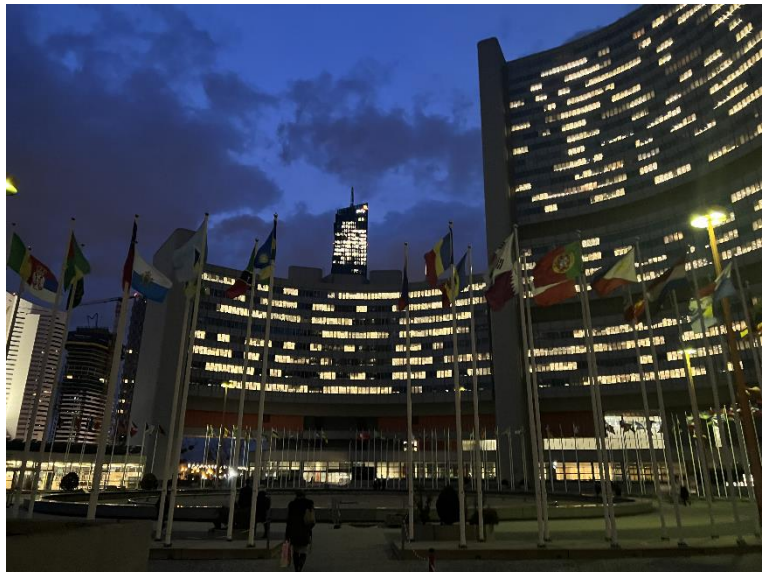


홍진기법률연구재단 국제기구 인턴파견사업 결과보고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연주
오스트리아 빈 소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근무

I. 들어가며

2020년도 하반기에 홍진기법률재단 국제기구 인턴파견사업에 선발되어, 2022년 12월부터 서울에서 재택근무로 시작한 뒤, 2023년 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약 2개월 간 오스트리아 빈(비엔나) 소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본 사업에 처음 선발되었을 때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휴학 중이었어서, 휴학 기간 도중에 해외파견 인턴을 가고자 하였으나 당시 세계적 팬데믹으로 많은 국제기구들이 인턴을 채용하지 않거나 재택근무만 가능한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그렇게 복학 후 학업을 이어나가다 제게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해외인턴을 할 수 있는 기간인 법전문 3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II. 지원절차 및 선발에서부터 출국까지

1. 지원방법 및 유의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유엔기구 공식 채용사이트인 careers.un.org 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했습니다. 다만 유엔과 관련된 기구여도 본 사이트에서 공고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UNDP, UNHCR 등) 유엔과 관련은 없지만 인턴으로 일하기에 적합한 국제기구는 굉장히 다양하니 관심가는 분야의 기구들의 채용 방법 및 공고들을 다양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공식사이트에서 지원할 경우, 인턴은 대부분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비슷하지만, 특히 법률관련 기구들은 간혹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추가적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ICC 등 기구들은 추천서 두 장 이상, 관련분야 writing sample 등을 요구합니다) 필요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같다고 모두 복사+붙여넣기로 동일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분야 / 기구의 직무에 맞는 방향으로 강조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꽤 여러 군데 작성하여 지원했는데, 최종적으로 나가게 된 인턴십이 제가 제일 급하게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이 높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UNODC의 여러 팀들 중에서도 저는 HAS (HIV/AIDS Section)에서 근무했는데, 학부 때 사회학을 전공하며 한센병 관련 연구를 하고 학사논문도 관련 주제로 작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서를 금방 작성할 수 있었고, HIV/AIDS 관련 지식은 솔직하게 없다고 적었지만 질병, 사회, 인권 등에의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제기구 인턴채용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

에의 깊은 지식을 요하지는 않기에 (저와 같이 근무했던 인턴들 역시 HIV/AIDS 부분에서는 별로 지식이 많지는 않았고, 법이나 인권, 국제보건 등 관심과 전공이 다양했습니다) 솔직하게 작성하되 최대한 직무내용과 연관시키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많은 공고들의 직무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공식 사이트의 Publication 란 등을 참고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어도 제일 먼저 읽게 시키는 것이 공개된 보고서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관심을 어필할 수도 있고, 해당 직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경험했던 거의 대부분의 인턴 면접들에서는 ‘우리 웹페이지는 읽었죠?’ 라는 식의 질문들이 있었던 것으로, 면접 전에 웹 사이트를 꼼꼼하게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지원서를 작성할 때에도 참고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2. 면접부터 출국까지

면접은 화상으로 이루어졌고, UNODC HQ인 비엔나 사무소와 한 번,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와 한 번 보았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 HIV/AIDS 섹션의 경우 필드오피스와 본부가 긴밀하게 일을 하고, 인턴의 지원서들도 세계 모든 오피스에 공유되어, 마음에 드는 인턴이 있는 경우 해당 사무소에서 면접을 잡는 형식이었습니다.

지원자에 대한 면접이 모두 마무리된 자카르타 오피스에서 먼저 오퍼를 주었고, HQ에서 인사(프로그램)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복잡하게 논의된 이야기를 결론만 말하자면) 12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 계약을 하되,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간만 현지 생활이 가능하므로 그 기간동안 쪼개 앞의 절반은 자카르타에서, 뒤의 절반은 비엔나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흔치는 않습니다만 저희 섹션의 경우 위 담당자분께서 굉장히 유연하게 일처리를 해주셔서 이런 식의 협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카르타 오피스의 인턴이지만, 인턴의 일부를 비엔나 본부에서 두 곳 일을 모두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저는 1-2월 2개월을 비엔나에서만 인턴을 하게 되었는데,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12월이 되고 보니 자카르타 사무소에서 제 출국 관련 행정처리를 아직 마무리 짓지 않았고 하필 연말-연초가 끼어 일처리가 너무나 늦어져, 결국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비엔나 본부 측에 연락해 자카르타는 가지 않고 바로 비엔나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하고 출국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하루종일 이메일을 붙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비엔나의 경우, 이하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제기구가 다수 상주하고 있는 VIC (Vienna International Centre)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간이 워낙 단기라 한국인 여행자라면 그 기간 내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VIC Security 측에서 요구하는대로 단기워킹비자를 받아야했습니다. 참고로, 유럽 국가들의 비자발급은 굉장히 오래걸리는 절차입니다. 저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최단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 같은데, 비엔나로 만약 가시게 된다면, 먼저 제가 사측에 비자를 요구 -> 사측에서 비자를 요청하는 공문을 오스트리아 외교부에 송부 (다만, 오스트리아 법상 제가 사측에 비자를 요구한 시점부터 2주 정도 후에야 이 공문 송부가 가능) -> 오스트리아 외교부에서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으로 공문 전달 -> 여타 개인 서류와 이 공문이 합쳐져 비자 발급 가능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 12월 중순이 넘어 본부로 곧바로 가는 절차를 논의했으니, 사측에 비자를 요구하는 절차가 12월 하순에 있었던 것이고, 이때부터 이미 주한 대사관에 연락을 몇 차례 해 빠르게 출국해야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려, 1월 초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자마자 당일에 비행기표, 숙소, 보험 기타 모든 서류를 준비해 (한시간 반 이내에 이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비

자를 발급받고, 며칠 뒤 곧바로 출국했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 이럴 일은 없으시길 희망하지만, 만약 이처럼 급하고 빠르게 비자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면 1)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국제기구 인턴은 재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고(다만 이런 규정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2) 사전에 미리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연락을 드려 이런 상황에 있음을 알릴 것 (예상 출국일을 잡아두고 최대한 이 날에 출국해야 한다고 어필했습니다)을 권합니다. 저는 비엔나로 갔더니 담당자분이 이렇게 빠르게 일처리해서 온 사람은 처음 봤다고 놀라시긴 했습니다... 급하게 출국했지만 별 큰 문제는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지만, 사실 숙소를 구하는 등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되진 않지만) 여유를 두고 출국하시길 바랍니다.

3. 숙소 등

비엔나에서 인턴을 하게 될 경우, 숙소가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한인커뮤니티 <http://www.korean.at/>에서 좋은 숙소를 구했습니다 (1구에 위치했으며, 위치대비 저렴했고, 제가 전차인으로 flat share하는 형태였습니다). 위 커뮤니티는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 글이 별로 없긴 한데, 예전글이라도 연락을 드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저는 숙소 자체는 굉장히 좋고 만족스러웠지만, 한인 임대인과 다소 트러블이 있어 마지막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조건 권해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비엔나에서는 에어비앤비 장기렌트가 굉장히 비싸고, 1인 원룸 스튜디오를 빌리기에는 매물이 별로 없고, Student Housing 은 많지만 6개월 이하로는 거의 받아주지 않는데다, 위 같은 급한 출국의 사정으로 저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참고로 student housing 은 원래는 미리 정식절차를 밟아 6개월 이상 거주만 받는 경우가 많지만, 급한 경우 직접 이메일을 보내면 남는 자리가 보통 있기는 한 듯합니다. 인턴들은 이런 student housing 에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비엔나로 가신다면 VIC Interns Group이 왓츠앱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종종 임대/임차를 희망하는 글이 올라오고, 저도 이를 통해 연락했던 경우도 있어서 여기서 구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VIC Interns Group은 초대나 링크를 받아야 가입가능한데, 매번 바뀌는 듯해, 만약 저라면 부서 내 인턴이 있는지 문의하고, 인턴의 연락처만 미리 받아 위 그룹에 초청을 부탁해 알아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비엔나의 경우 서울보다는 굉장히 작아서, 사실 집을 어디에 구하든 서울에서 통근하는 것보다는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 지하철도 서울에 비해서는 훨씬 널널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안전하니, 집 위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I. 인턴 근무 및 생활

1. 업무내용

상술했듯 저는 UNODC HAS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마약범죄사무소와 에이즈가 무슨 연관인가 싶겠지만

만(저도 그랬습니다), 본 부서에서는 특히 ‘Drug use and HIV’ 그리고 ‘Prisons and HIV’ 에 집중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HIV 전파의 주요 경로 중 하나가 마약 투여를 위한 주삿바늘을 공유하는 것이고, 특히 열악한 감옥환경 내 재소자 간 전파가 문제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HIV, 나아가 결핵, 간염 등 감염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엔나 사무소는 HQ로서 각 필드 사무소와 협력하고, 펀딩을 받아오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짧은 인턴이고, 주요한 회의는 3월 중순부터 연이어 있어 저는 그 준비업무도 맡기 애매해 실제로 한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도 어느정도는 예상한 것이, 과거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당장 인턴에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써 가르칠 수는 없어 초반에는 거의 업무가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 일을 동시에 맡게 되며 급작스럽게 바빠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적의 환경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유엔난민기구에서 8개월 간 인턴을 경험해 국제기구의 업무스타일은 알고 있어 이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어려움은 거의 없었고, 수퍼바이저가 자카르타 사무소에 있어 주위적으로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어 반대로 제가 관심있는 분야로 일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두 번째 직급인 분이 medical doctor로, 감옥/재소자 관련 전문가셨는데, 저는 UNODC에서 출판한 여러 문헌을 읽고 공부해가 그 분께 질문도 하고 training slides 만들거나 관련 회의 참석해 회의록 작성하는 등의 일들도 받아서 하는 등 업무 중 제 관심분야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아공 필드 오피스와도 협업해 concept note 작성을 하기도



하고, 원래 소속인 자카르타 오피스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감수, 편집하는 등, 나름대로 단기간이지만 저에게는 최적의 방향으로 업무를 경험하고 최대한 배우려 했던 것 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처음 일하신다면 특유의 업무 스타일이나 생활상 면에도 초반에 적응기간이 요구되니, 조금해하시지 않고 일을 익혀나가시면서, 점점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가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찾으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무급인턴들에게는 직원 분들이 주로 굉장히 측은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고 질문을 하시면 최대한 도와주려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최고의 경우는 학위논문을 관련 분야로 작성하는 것인데, 국제기구에서 다루는 일은 그 외부에서는 알기도 다루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공분야와 맞으신다면 병행도 추천드립니다.

2. 비엔나에서의 인턴생활

수많은 도시 중 비엔나에서의 국제기구 인턴을 적극 추천드린다면, 바로 VIC 내에 수많은 인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하나의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구가 몰려있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모인 인턴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원자력기구에서 근무하는 한국 인턴들과도 초반에 소개를 타고가 연이 닿아 지속적으로 만나고 놀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만날 기회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다른 국적의 인턴들과 최대한 많이 만나고, 함께하려 했습니다. 크게 IAEA (국제원자력기구) 친구들 그룹, 그리고 저희 부문 인턴들 그룹과 자주 놀았는데, 미국, 러시아, 영국, 포르투갈, 터키,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교류했던 경험이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다들 문화적으로도 꽤 열려있어서, 각국의 문화나 사회를 많이 배우고 또 알릴 수 있었고, 요즘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 어딜가든 환영(?)받았습니다. 특히 같은 부문에서 일하는 인턴들과는 관심사나 가치관 등이 어느정도는 비슷하다보니, 서로로부터 배우는 점도 많았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포르투갈 친구와는 이야기하며 항상 포르투갈 사회와 한국사회가 얼마나 비슷한지 매번 놀랐고, 포르투갈의 마약 정책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터키 친구는 제게 봉준호와 박찬욱 감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설파했으며, 인도계 오스트리아인 친구로부터는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으며 생활독일어 한두마디 혹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토막상식을 배우는 등, 저는 최대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노력한 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인턴들이 단기간 인턴근무를 위해 비엔나에

온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거의 유일한 또래집단이다보니 함께 할 기회가 많은데다, 특히 유럽인들은 국경을 넘는 것에 익숙하다보니 처음 보는 사람과도 잘 친해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편입니다. 보다 장기간으로 인턴을 하게된다면 유럽 곳곳을 여행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점을 최대한 활용해 인턴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하고, 교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느껴 여행은 거의 다니지 않았고 퇴근 후나 주말은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뭐라도 먹으러 나가거나 구경을 가고 혹은 집에 초대를 하거나 초대받아 가거나 했습니다. 친구들과는 정도 많이 들어 귀국하기 전 모두가 정말 섭섭해했고, 귀국해서도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래의 인턴들 외에 국제기구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직원 분들을 만날 기회도 최대한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부문 Programme Management 담당자께서 거의 은퇴를 앞두신 여성 분이셨는데 인턴들끼리 잘 지내는 모습에 굉장히 흐뭇해하셔서 저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국제기구에서의 업무는 한국보다는 훨씬 개인주의적이라 회식 등 일터 밖에서의 교류는 거의 없는 편인데, 저희는 이 담당자분 가족과도 식사를 하고 밖에서 여러 차례 함께했습니다) 이 분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것, 국제기구의 업무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이 방면 일에 대해 듣고 알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또한 UNODC와 VIC 내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인 직원 분들도 만나보었는데,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검찰청에서 파견나오신 현직 검사님도 계시며, 앞으로의 법조계 내지는 커리어에 대한 조언과 말씀도 많이 듣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체 외향적인 성격이라 새로운 분들

을 뵙고 연락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랬을 수는 있지만, 인턴이 아니었더라면 외부에서는 뵙기도 어려운 분들도 직원으로 많이 계시기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고, 또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다들 한국인 특유의 정으로 잘 챙겨주려 하셔서 선배님들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IV. 맺으며

해외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인턴으로서 해외생활을 한다면 회사라는 든든한 울타리 내에서, 정말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기구의 업무 특성상 그 외부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거나 일을 해보기 어려운 업무인 경우가 많아, 학문적/커리어적으로라도 분명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어도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오스트리아 전체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비자 발급 나흘 후 출국했지만, 두 달 뒤 서울로 되돌아오는 저는 리스본, 비엔나, 이스탄불, 런던 등 온갖 도시에서 재워줄 테니 오기만 하라는 친구들이 생겼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더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비엔나에 단골 커피집이 생겼으며,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국립음대의 수업을 참관해보기도 한 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는 독일어로 1부터 10까지 셀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편협해질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중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갖고 한국에서는 잘 논의되지 않는 분야를 공부하며,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고민해보고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두 달이었으며, 소중한 고민의 기회와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홍진 기법률연구재단 및 실무진 분들께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